

인도네시아 인프라협력센터 주요 프로젝트 동향 보고 (2월 4주~3월 1주)

□ 정책 및 시장 동향

1. 프로젝트 정보

○ [플랜트] WTE 1단계 사업, 24개사 입찰 참가 자격 확정¹⁾(Bisnis, 2/13)

- Danantara가 추진 중인 WTE 사업 1단계 입찰에 총 24개 기업이 참가자격 획득. 이 중 중국 기업은 5개사로, Chongqing Sanfeng Environment Group, Wangneng Environment, Zhejiang Weiming Environment Protection, SUS Indonesia Holding Limited, PT Jinjiang Environment Indonesia 등이 포함. 해당 24개 기업은 중국, 프랑스,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 다양한 국가의 기업으로 구성
- 1단계는 Bali, Bogor, Bekasi, Yogyakarta 등 4개 도시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행정 준비도와 폐기물 발생 규모를 기준으로 선정. Danantara는 200개 이상의 기술 공급 후보군을 검토한 뒤 24개사를 기술·사업 자격 요건을 충족한 PSEL 개발 및 운영 사업체로 선별
- 입찰 참여 기업은 현지 파트너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기술 이전 및 지역 협력을 추진할 계획

○ [인프라] 북부 자바 Giant Sea Wall 설계 구체화²⁾(Bisnis, 2/9)

- 인 정부는 북부자바해안관리청(BOPPUJ)을 통해 Giant Sea Wall(GSW) 사업의 설계를 최종 조율 중임. BOPPUJ 청장 Didit Herdiawan Ashaf은 GSW가 최대 200년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내구성을 최우선으로 설계하고 있으며, 장기 국가 인프라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
- GSW 1단계 사업은 자카르타와 중부자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조수 피해가 빈번한 Semarang, Kendal 등이 우선

대상 지역으로 언급됨. 해당 사업은 북부 자바 연안(Pantura)을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될 계획

○ [인프라] Giant Sea Wall 사업, 단기 착공 어려울 전망³⁾(Bisnis, 2/23)

- 인 정부 산하 북부자바해안관리청(BOPPJ)는 북부 자바 연안 보호를 위한 Giant Sea Wall 사업이 단기간 내 착공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힘. BOPPJ Didit Hendrawan Ashaf 청장은 현재 사업 준비 단계의 일환으로 기술계획 수립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
- 정부는 단순 방조제 건설이 아닌 연안 제방 구축과 맹그로브 생태계 활용을 포함한 통합 연안관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관계 부처 및 지방정부 간 협력 체계 구축이 진행 중
- 한편 자카르타 주정부 Pramono Anung 주지사는 자카르타 구간 Giant Sea Wall 사업 착공이 2026년 9월로 계획돼 있으나, 전체 사업 일정은 기술계획 완료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도시개발] Bekasi 주거시장, 2026년 성장 전망⁴⁾(Bisnis, 2/13)

- Bekasi 지역 부동산 시장이 2026년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산업단지 확대와 인프라 개발, 지역 경제 성장 등이 주거 수요를 견인하는 요인으로 언급됨. 특히 중산층, 밀레니얼 세대 및 젊은 직장인을 중심으로 주거 수요가 유지되고 있음
- Cushman & Wakefield 보고서에 따르면 Bekasi의 저층주택 공급은 전년비 12% 증가했으며, 분양률은 95.8%로 Karawang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함. Bekasi는 다수의 국내외 제조기업이 입주한 산업 중심지로, 고용 창출과 도시화가 지속되고 있음
- Bekasi 지역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정부의 부가가치세(VAT) 면제 및 취득세(BPHTB) 감면 정책도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https://hijau.bisnis.com/read/20260213/652/19526735-penunjukan-asal-china-jadi-peserta-tender-waste-to-energy-danantara-cek-profilnya#gog_rewarded
2) <https://ekonomi.bisnis.com/read/20260209/45/1951372/shy-mau-giant-sea-wall-tahan-hingga-200-tahun-seperti-cmd-borobudur>

3) <https://ekonomi.bisnis.com/read/20260223/45/1955106/giant-sea-wall-belum-dilaksanakan-dalam-waktu-dekat-ini-akhsanra>
4) <https://ekonomi.bisnis.com/read/20260213/47/1952636/pesiar-properiti-bekasi-diprediksi-bertumbuh-pada-2026>

○ [도시개발] 인니 아파트 시장 부진 지속, 개발업계 정부 인센티브 지원 필요성 제기⁵⁾(Bisnis 2/16)

- 인도네시아부동산협회(REI)는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 판매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힘. REI Raymond Ardan Arfandy 사무총장은 수요 회복과 개발사의 유동성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지원 필요성을 언급
- 아파트 개발사업은 착공 초기 단계에서 건물 구조 전체를 선시공해야 하는 특성으로 인해 대규모 자본 투입이 요구되며, 분양 실적에 따라 단계적 건설이 가능한 단독주택 사업 대비 재무 부담이 큰 구조로 설명됨
- 최근 경제 여건 변화로 공동주택의 투자 수요가 둔화되면서 공급과 수요 간 불균형이 확대되고 있으며, REI는 별도 정책 지원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신규 사업 추진 및 기존 프로젝트 지속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

○ [인프라] 발리 Gilimanuk-Mengwi 유료도로 사업 재입찰 추진⁶⁾(Bisnis 2/16)

- 공공사업부(PU)는 투자자 확보에 실패했던 발리 Gilimanuk-Mengwi 유료도로 건설사업에 대해 재입찰을 추진할 예정. 유료도로관리청(BPJT) Wilan Oktavian 청장은 현재 재입찰을 위한 사업 준비도(Readiness Criteria) 문서 재작성 단계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
- 인정부는 투자 유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범위와 건설 단계 구성을 재조정하고 있으며, 교통수요를 반영한 단계적 개발 방식을 적용해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과 투자 매력도를 제고한다는 방침
- 해당 사업은 기존에 사업제안 승인 및 유료도로사업협약(PPJT) 체결까지 완료됐으나, 토지보상 및 금융종결 의무가 충족되지 않아 2023년 8월 3일 협약이 종료된 바 있음

○ [플랜트-발전] 원전 관련 안전성 논의 계속⁷⁾(Indonesia Business Post, 2/19)

- 인니 원자력 발전(PLTN)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원전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및 체르노빌 사고가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주요 사례로 언급되며 대중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가연구혁신청(BRIN) 산하 연구조직 책임자 Syaiful Bakhri는 최신 원전(Generation III 및 III+)의 경우 설계 단계부터 고도화된 안전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 또한 원전 건설 이전 부지 적합성 평가가 수행되며, 액상화 위험, 침식 가능성 및 지진 취약성이 높은 지역은 입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힘
- 인정부는 해외 원전 기술 도입을 추진할 경우 이미 검증 및 인허가를 완료한 기술을 우선 선정한다는 방침. 한편 국가전력공급계획(RUPTL) 2025-2034에서는 원자력발전소 후보지 28개 지역이 잠재 입지로 제시됐으며, West Kalimantan 및 Bangka Belitung 등 일부 지역은 자연재해 및 기후 위험 요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언급됨

2. 주요 기업·기관 동향

○ [현지기업] Sinar Mas Land-Sumitomo Forestry, Cibubur Ecovia 개발 본격화⁸⁾(Tempo, 2/18)

- Sinar Mas Land와 일본 Sumitomo Forestry는 Kota Wisata Cibubur 지역 Ecovia 개발사업의 마케팅 갤러리 착공식을 개최하며 사업 추진을 본격화. 해당 시설은 약 156.5ha 규모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정보 제공 및 홍보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
- 마케팅 갤러리는 약 2만4,800㎡ 부지에 2층 규모 복합시설로 조성되며, 스포츠 클럽과 상업시설이 결합된 복합시설 형태로 개발될 예정임. 양사는 지속가능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자연친화적 설계 개념을 적용했다고 설명

5) <https://ekonomi.bisnis.com/read/20230216/47/1953259/penjualan-hunian-vertikal-lesu-pengembang-butuh-insentif-dari-pemerintah>

6) <https://ekonomi.bisnis.com/read/20230216/45/1953252/td-terpanjang-d-bali-gilimanuk-mengwi-dilelang-kerbau-masuk-tahap-pelelangan>

7) <https://indonesiasinespost.com/6117/energy-and-resources/indonesia-weighs-debate-over-nuclear-powered-energy-as-safety-remains-for-future-energy-mix>

8) <https://www.tempo.co/info-tempo/sinar-mas-land-dan-sumitomo-forestry-gelar-groundbreaking-marketing-gallery-ecovia-d-kota-wisata-cibubur-211625>

- Sinar Mas Land Residential National CEO Prasetijo Tanumihardja는 이번 착공이 Ecovia 개발의 본격적인 단계 진입을 의미하며, 향후 통합형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

○ [현지기관] 인니 국영전력공사, 국가전력공급계획(RUPTL) 통해 약 1,000억불 규모 투자 추진⁹⁾(CNN Indonesia 2/4)

- 에너지광물자원부 신재생에너지·에너지보존국(EBTKE) Eniya Listiani Dewi 국장은 PT PLN의 향후 10년간 국가전력공급계획(RUPTL)에 반영된 전력개발 계획에 따라 약 1,000억불(1,682tril IDR) 규모 전력부문 투자가 추진될 예정이며, 이 중 약 70%는 민간부문을 통해 조달될 계획이라고 설명. 정부는 이를 통해 에너지 전환 가속화와 민간 투자 참여 확대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
- RUPTL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및 송전망 구축 확대를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특히 지역 간 재생에너지 전력 수송을 위한 송전선 건설이 주요 과제로 제시됨.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송전 인프라 부족이 전력 개발의 제약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3. 정부 정책동향

○ 자카르타 주정부, 지하수 취수 건물·기업에 시정 조치¹⁰⁾(VOL. 2/9)

- 자카르타 주정부는 지반 침하 대응을 위해 지하수 취수를 지속하고 있는 건물 및 기업을 대상으로 시정 조치와 서면 경고를 시행. Pramono Anung 주지사는 건물 에너지·수자원 효율성에 관한 주지사령(2026년 제5호)에 따라 규정 미이행 건물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
- 해당 조치는 자카르타 내 지하수 무분별한 사용이 지반 침하와 침수 위험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주정부는 지하수 사용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향후 감독을 더욱 강화할 방침.

주정부는 자카르타 전역에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여건이 마련돼 있어 지하수 사용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

- 주정부는 건물별 물 사용 패턴 모니터링도 병행하고 있으며, 건물 부문이 자카르타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바, 해당 규제가 저탄소 도시 전환 정책의 일환이라고 강조

○ 일본산 노후 전동차 퇴역, 중국·국산 차량으로 교체¹¹⁾(Nikkei Asia 2/8)

- 국영 철도운영사 PT Kereta Api Indonesia(KAI)는 자카르타 통근철도(KRL)에 투입되던 일본산 노후 전동차를 단계적으로 퇴역시키고, 중국산 및 국산 신규 차량으로 교체를 진행 중임. 해당 조치는 차량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과 서비스 품질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
- KAI는 중국 CRRC 그룹이 제작한 전동차 11편성을 이미 도입했으며, 국영 철도차량 제작사 PT Industri Kereta Api(INKA)에 추가로 16편성 발주. 이 중 INKA 제작 전동차 2편성은 2025년 12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나머지 14편성은 2026년 7월까지 순차 투입될 예정
- 자카르타 통근철도는 일일 약 100만 명이 이용하는 인도네시아 최대 규모의 철도 네트워크로, 신규 차량 도입은 대량 수송 능력 유지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 조치임. 일본 업체도 입찰에 참여했으나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선정되지 않음

○ 인정부, 자카르타-반둥 고속철 중국차관 상환지원 검토¹²⁾(Nikkei Asia 2/17)

- 인정부는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KCJB) 사업과 관련된 중국 차입금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재정(APBN) 활용 가능성을 검토 중임. 이는 사업비 증가와 예상 대비 낮은 이용객 수로 인해 운영사의 재무 부담이 확대된 데 따른 조치
- 동남아 최초 고속철도인 Whoosh는 개통 이후 초기 수요 전망에 미치지 못한 이용 실적과 건설비 증가로 대중국 차입금 상환

9) <https://www.cnnindonesia.com/ekonomi/20260203195610-65-132428/npl-pn-buka-investasi-rlp68-triliun-70-persen-dari-swasta>

10) <https://voicidenews/557235>

11) <https://asia.nikkei.com/business/transportation/indonesia-retires-retro-japanese-trains-for-new-chinese-and-domestic-fleet>

12) <https://asia.nikkei.com/business/transportation/indonesia-eyes-public-funds-to-pay-china-debt-for-high-speed-railway>

부담이 확대된 상황. 정부는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대출 조건 재조정 및 상환기간 연장 방안도 함께 검토 중

- 아울러 이용객 증가 및 비운임 수익 확대 등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당초 국가재정 투입 없이 추진됐던 기존 사업 재원 구조와는 다른 대응 방향으로 언급

4. 녹색산업 동향

○ **에너지광물자원부, 수소 개발 제도 정비 착수¹³⁾(Bisnis, 2/11)**

- 에너지광물자원부(ESDM)는 수소 개발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 가속화를 규정한 대통령령 제112호(2022년) 개정을 추진 중임. 에너지광물자원부 신재생에너지·에너지절약국 (EBTKE) Eniya Listiani 국장은 이번 개정이 수소를 활용한 전력 생산과 관련한 가격 기준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
- 정부는 이와 함께 수소 및 암모니아 개발을 보다 명확히 규율하기 위한 신규 정부령(PP) 제정도 검토 중이며, 해당 규정에는 인센티브 제공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언급됨.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이를 통해 수소 개발과 활용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간다는 입장
- 에너지광물자원부 Yuliot Tanjung 차관은 수소 활용이 산업 다운스트림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비료 산업에서의 활용이 주요하다고 설명. 현재 인니의 연간 수소 소비량은 약 175만t 수준으로, 요소비료(48%), 암모니아(4%), 정유 부문(2%) 등에서 주로 사용

□ **중점 프로젝트 동향**

① **자카르타 데이터센터**

| < 사업 개요 > | |
|--------------|---|
| ▪ (사업주) | SM플러스 (시나르마스그룹 계열사) - 한투그룹, KIND, S펀드 출자 싱가포르 SPC |
| ▪ (참여기업) | LG CNS (현지법인 통해 장비공급·설치, 운영, 직접사용 및 재판매) |
| ▪ (사업비) | 2.9억불 |
| ▪ (사업내용) | 자카르타 시내 수전 30MW, IT Load 18MW 데이터센터 건설, 운영, 매각 |
| ▪ (추진현황) | 본사 투자의결('25.9.15) / 현재 공사중 / 대출약정 체결 ('26.1.15) |
| ▪ (26년 센터목표) | 금융종결 / 프로젝트운영실 이관 / 후속안건 발굴 |

- (주요동향) 건물공사 원활히 진행중, MEP 공사시작 준비

② **BSD 신도시 주거단지**

| < 사업 개요 > | |
|--------------|--|
| ▪ (협력사) | 시나르마스 랜드 (Sinarmas Land, SML) |
| ▪ (참여기업) | 대우건설, 대한주택협회 회원사 JV |
| ▪ (사업비) | 미정 |
| ▪ (사업내용) | 46.6ha에 한국테마 적용 주거단지 (빌라 및 샵하우스) 건설, 분양 |
| ▪ (추진현황) | 대우건설-SML MOU 체결('24.9.2), 1차(~'25.8) 및 2차 연장(~'26.2.15) - 토지가 협상, 자체 FS 완료 - Termsheet 체결 - 최종 FS 수행 중 |
| ▪ (26년 센터목표) | 투자 의결 / 설계 완료 및 분양 개시 |

- (주요동향) KIND 지원 FS 중간보고 완료(2.25)

③ **수방 전기차 특화 산업단지**

| < 사업 개요 > | |
|--------------|---|
| ▪ (협력사) | 현지 디벨로퍼/토지주 |
| ▪ (참여기업) | GS건설 및 중국계 기업 참여 검토중 |
| ▪ (사업비) | 미정 |
| ▪ (사업내용) | 수방 지역내 산업단지를 단계별 조성, 분양 통해 Exit |
| ▪ (추진현황) | '25.2 전반적 협력 MOU 체결, '25.5~7월 NDA 체결 및 수방산단 사업 Pre-FS 수행 / '25.12 정부사업 실사로 인한 사업순연 발생 |
| ▪ (26년 센터목표) | 사업개발비 분담 통한 사업 참여 / 사업성 확보시 투자 의결 |

- (주요동향) GS건설, DD 및 시장조사 시행중

13) <https://ekonomi.bisnis.com/read/20260211/44/1951899/esdm-gabk-aturan-pengembangan-hidrogen-4-indonesia>

④ 자카르타 MRT 4호선

< 사업 개요 >

- (발 주 처) 자카르타 주정부(DKI Jakarta)
- (참 여 사) 플레너리, KIND, 국가철도공단, 삼성물산
- (사 업 비) 15억불 ('22년 Pre-F/S 기준)
- (사업내용) 자카르타 MRT 4호선 건설, 유지보수 ⇒ AP로 회수 (운영 분리예정)
- (추진현황) K-컨소 LOI 제출('23.2), LTP(AP 제외) 수령('24.1.26), 수정 LTP(AP 포함) 수령('25.2.19) - 기한연장 확정('25.7.8) - 플레너리 합류 JVA 체결준비
- ('26년 센터목표) 플레너리 포함 비용분담, 최종 FS 제출 / Initiator 지위 획득

○ (주요동향) 사업주(삼성물산) 본-지사 입장차 조율 필요

⑤ 신수도 공무원주택

< 사업 개요 >

- (발 주 처) 신수도청(OIKN)
- (참여기업) 삼성물산, 브란타스(추진철회) + CSCEC, Hutama Karya(협의중)
- (사 업 비) 약 4억불
- (사업내용) 신수도내 공무원주택(아파트 21개동) 건설, AP로 회수
- (추진현황) '24.10 삼성물산-브란타스 MOU, '24.11 LOI 제출, '25.5.22 LTP 수령, '25.10월 LTP 기한연장 확정(~26.1) - 사업주 합류/이탈 협의중
- ('26년 센터목표) LTP 추가기한연장 / 사업추진여부 및 사업주 확정

○ (주요동향) CSCEC 또는 Hutama Karya 합류 검토 계속

□ 기타 프로젝트 동향 및 센터 운영 현황 보고

① 기타 프로젝트 동향

① Nusantara 정치수도(Political Capital) 건설

< 사업 개요 >

- (발 주 처) 신수도청(OIKN, Otorita Ibu Kota Nusantara)
- (참여기업) 현지 국영건설사 재정사업 참여중 / PPP사업 외국기업 참여 추진중
- (사 업 비) 466조 Rp (원화 약 40조원)
- (사업내용) 자카르타의 고질적 문제와 지역균형발전 추구 목적으로 동칼리만탄에 신수도를 건설 / 프라보워정권 출범후 정치수도로 재명명
- (추진현황) 재정으로 대통령궁 및 집무실, 공무원주택 및 오피스, 도로, 사법단지 등 완공 및 건설중 - PPP로 지하공동구(MUT), 공무원주택, 관제센터 등 추진중
- ('26년 센터목표) 공무원주택 FS 협조 / 관제센터 등 추가사업기회 구체화

○ (주요동향) '25.12월말 기브란 부통령, '26.1.13 프라보워 대통령 신수도 방문, '28년까지 정치수도로 기능하도록 지시

- 신수도 관련 현지 언론보도 종합

- '26년중 신수도에 16개 중앙부처·기관 업무개시 추진¹⁴⁾(Bisnis, 2/10)

- 신수도청은 2026년 중 총 16개 중앙부처 및 기관이 신수도에서 정기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힘. 신수도청 대외소통 특별보좌관 Troy Pantouw는 공무원(ASN) 이전이 주거, 의료, 교육 등 기본 서비스 제공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
- 신수도 정부핵심업무지구(KIPP) 내에는 총 4개 병원이 조성돼 있으며, 이 중 Hermina Nusantara 병원, Mayapada Nusantara 병원, 보건부 산하 Pisah 종합병원이 운영 중임. BPJS Kesehatan¹⁵⁾ 및 BP Jamsostek¹⁶⁾ 서비스도 KIPP 내에서 제공되고 있음

14) https://ekonomi.bisnis.com/read/20260210/45/1951723/kn-bersiap-smbt-16-kementerian-dan-lembaga-beroperasi-nutin-pada-tahun-ini#goog_rewarded

15) BPJS Kesehatan-국민건강보험 운영기관

16) BP Jamsostek-고용·산재보험 운영기관

- 교육 분야에서는 유아교육부터 고등학교까지 통합형 학교가 2026/2027학년도부터 운영될 예정이며, 신수도 국립모스크는 2026년 라마단 기간 중 개소를 목표로 준비 중

- 신수도청, 야생동물 보호 및 산림복원구역 조성 추진¹⁷⁾(Antara, 2/20)

- 신수도청은 North Penajam Paser 및 Kutai Kartanegara 지역에 조성 중인 신수도 개발 과정에서 야생동물 보호와 Kalimantan 고유 산림 복원을 위한 공간 확보중
- 신수도 내 유료도로 상부에는 생태통로가 설치되며, 해당 통로는 동물 이동 및 서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 이는 신수도 Forest City 개발 개념에 따라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고려한 개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 신수도는 Forest City 개념에 따라 도시개발과 환경 보전을 병행하고 있으며, 산림 및 녹지 보전을 고려한 개발 정책을 추진 중. 신수도청 산림 및 수자원 활용개발국 국장 Onesimus Patiung 는 토착 동식물을 활용한 산림 복원이 지역 미기후 형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Sepaku 지역 Mentawir Nursery에서는 생물 유전자원 보존을 위한 germplasm center 구축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

② 포노고로 스마트가로등 PPP

< 사업 개요 >

- (발 주 처) 포노로고시(Ponorogo Regency)
- (참여기업) 도화엔지니어링, 예코란트
- (사 업 비) 328억원
- (사업내용) 2,623개 스마트 가로등 설치, 기반공사 및 운영
- (추진현황) 인근지역 KCN 실증 完, 호평 - 포노로고 대상 KIND FS지원, 준공(24.3) - 물량확대로 자체 FS보완 - KIND 제안서작성지원 대상사업 선정(26.1)
- ('26년 센터목표) 문서/절차 완결성 검증 / 제안서작성지원 완료, 최종FS 제출

○ (주요동향) KIND 제안서작성지원 착수일정 협의

- 도화 개발사업 담당 법인장 면담, 제안서작성지원 용역수행계획 및 착수계획 협의

③ 바탐 항나뎀 공항 제2터미널

< 사업 개요 >

- (발 주 처) 바탐 경제자유구역청(BIFZA)
- (참여기업) 인니공항공사(Ankasa Pura), 인천공항공사, Wijaya Karya(T2 불참예정)
- (사 업 비) 5,948억원
- (사업내용) 기존 T1 리뉴얼, T2 신설, 공항운영 및 지원시설 재배치
- (추진현황) T1 리뉴얼 완공 및 운영 중 / T2 사업주 재편 및 EPC 선정 추진중
- ('26년 센터목표) 자원조달 상황 점검 및 사업 참여여부 결정

○ (주요동향) 제2터미널 시공발주계획 파악중

- 현지언론에는 올1분기내 착수 목표로 시공사 입찰계획이 보도된 바 있으나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려운 스케줄임
- 응찰의향 있는 롯데건설-Adi Karya와 지속 정보교환 예정

17) <https://en.antaranews.com/news/466214/kr-sets-aside-space-for-wildlife-forest-restoration>

② 협력센터 운영 보고

- 주요기업, 기관 면담 ('26. 2월 4주~'26. 3월 1주)
 - 네트워킹 6건 :법무법인 세종·도화·삼정KPMG, IFC 도쿄사무소, 롯데건설 개발법인·유신 인니지사, KB 인니은행·대우건설, 썬앤엘, 신한증권·한투증권·LG CNS
 - 사업개발 8건 :KIND 본사, 한투리얼에셋자산운용, CB&I, 대우건설·삼일회계법인, 삼성E&A·DK컨설팅, GS건설, 대우건설·시나르마스랜드·삼일회계법인
 - 대관업무 3건 : 국토관·LG CNS, Danantara, Danantara·수자원공사